

황교안 “文, 경제파탄의 길로…北김정은만 챙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온 나라가 경제 파탄의 길로 가고 있다”며 “굴종적 대북 정책과 와다 외교정책을 중지 하라고 국민 목소리를 끊임없이 전했지만 이 정권은 북한 김정은만 챙기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정문 앞에서 ‘국민속으로 민생부쟁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도그마에 매달려 다른 의견은 모두 무시해 오늘과 같은 경제폭망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며 “모든 경제 지표가 사상최악을 기록하고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라 는 사실조차도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권 믿고 괴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대통령 마음대로 코드인사를 떨어붙여 장관·선관위·현재·대법원도 대통령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웠다”며 “국민 저항도 이탕 반대도 다 무시하고, 독선과 독재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고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민생과 상관없는 선거법, 공수처법을 불법 사보입과 무자비한 폭력을 동원해 악착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렸다”며 “삼권 분립을 무너트리고 국민의 뜻을 전혀 듣지 않고 입을 틀어막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좌파독재를 완성하고 연장하기 위해 서 브레이크 없는 무리한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정말 민생을 논 의하겠다고 하면 100번이라도 응할 텐데 민생 추경 재난 추경을 분리해서 논의하는지는 우리 당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있다”며 “(이 정권은) 민생 팔아서 좌파독재 정당화하고 선거용 현금을 살포하려는 시도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맹비난 했다.

# 박지원 “농어촌 지역 대표성 고려 300석보다 증원 필요”

“인구 5000만명에 의석수 적어…정개특위서도 30~60석 증원안 검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보다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 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비례 대표가 증가돼 지역구가 줄어들면 현재 농어촌 지역구는 형편없이 더 축소될 것”이라며 “수도권·대도시 중심으로 의석이 배분되면 농어촌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

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구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난다.

그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봐서 농어촌 지역(의석)은 보강시켜주는 게 좋다”며 “그래서 처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 때도 여야가 약 30석 내지 60석 증원을 검토했을 때(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구 5000만명에 비해 300석은 적다”며 “국민경제에 지

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비를 둘걸 하거나 보조관 수를 줄이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 예산 범위 내에서 30석 정도 증원하면 현재의 농어촌 선거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일 광주 KBS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 정서도 이제 많이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40차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 김관영, 유승민 겨냥 “총선출마 기호 3번이냐 2번이냐?” 비판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사퇴요구…당권확보 집착 해당행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유승민 전 대표를 포함해 원내 대표 사퇴를 강요하고 당 지도부를 끌없이 흔드는 분에게는 우리

그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청당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다. 기회주의적 행동이자 해당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청당정

신에 입각해 우리 당에 빼를 묻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당 자강과 개혁에 매진하는 것이야 말로 청당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련의 원내대표직 사퇴 요

구에는 ‘지금 상황을 견디기 힘들다고 원내대표직을 던지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바른미래당을 지켜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당제

를 지켜내는 개혁정당인가. 자유한

국당과 함께하는 반개혁 연합인가

합집해 달라”며 “한국당과 함께 반

개혁세력으로 편승하고 당 회합을

거부하면서 당권에 집착하는 것은

청당정신을 망각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정치개혁이자 우리 당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다. 온 힘

을 다해 추진해온 개혁과제이기도

한다”면서 “저는 당을 위해 정치개

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을 반

대하는 분들은 개혁을 철저하게 거

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수결로 정해진 것을 끝

까지 반대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거

꾸로 가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당을 흔들고 있는 분들이 내년 총선

에서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기호 3

번을 달고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

지와 결기를 전혀 찾지 못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의원들의 공식·비공식

발언을 들으면 자유한국당과 통

합·연대를 감안하거나 이에 눈치

를 보는 상황”이라며 “보수를 빙자한 반개혁 세력이 국단적 대립을 통

해 여론조사에서 수치를 좀 더 받는

다고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창

당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다. 기회주

의적 행동이자 해당행위”라고 비판

했다.

그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청당정

신에 입각해 우리 당에 빼를 묻겠다

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당 자강과

개혁에 매진하는 것이야 말로 말

을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련의 원내대표직 사퇴 요

구에는 ‘지금 상황을 견디기 힘들

다고 원내대표직을 던지는 것은 정치

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바른미래당을 지켜야 할 책임이 저

에게 있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야 내년 총선

에서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기호 3

번을 달고 선거에 임하는 것에 제가

원내대표로서 있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며 “제

게 원내대표 사퇴 요구와 조기경선을

요구한 의원들 모두가 바른미래

당 이름으로 기호 3번을 달고 자유

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의 연

대·통합 없이 당당히 총선에 나가

국민의 심판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

하면 즉시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볼 때 우려된다”면서 “원내

대표 입장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데 사퇴를 요구하며 물러나려는 것

을 보면 저를 물어내고 당권을 확보

하겠다는 집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벌어지는 당 사태의

본질은 계파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분란을 일으킨 사람 때문”이라며

“계파정치로 당을 흔드는 것은 청당

정신과 철저하게 반대로 가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야 내년 총선

에서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기호 3

번을 달고 선거에 임하는 것에 제가

원내대표로서 있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며 “제

게 원내대표 사퇴 요구와 조기경선을

요구한 의원들 모두가 바른미래

당 이름으로 기호 3번을 달고 자유

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의 연

대·통합 없이 당당히 총선에 나가

국민의 심판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

하면 즉시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볼 때 우려된다”면서 “원내

대표 입장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데 사퇴를 요구하며 물러나려는 것

을 보면 저를 물어내고 당권을 확보

하겠다는 집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벌어지는 당 사태의

본질은 계파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분란을 일으킨 사람 때문”이라며

“계파정치로 당을 흔드는 것은 청당

정신과 철저하게 반대로 가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야 내년 총선

에서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기호 3

번을 달고 선거에 임하는 것에 제가

원내대표로서 있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며 “제

게 원내대표 사퇴 요구와 조기경선을

요구한 의원들 모두가 바른미래

당 이름으로 기호 3번을 달고 자유

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의 연

대·통합 없이 당당히 총선에 나가

국민의 심판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

하면 즉시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볼 때 우려된다”면서 “원내

대표 입장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데 사퇴를 요구하며 물러나려는 것

을 보면 저를 물어내고 당권을 확보